‘슈퍼추경’에 지역현안사업 밀어넣기 안간힘

강운태시장, 지역 국회의원 만나 지원 요청

박준영지사, 문체부 방문 F1 등 지원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슈퍼추경’으로 불리는 새 정부 첫 예산에 지역 현안사업을 밀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대 20조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추경예산 공략방안과 대선공약 등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부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할 10개 사업(1368억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10개 사업은 ▲치과 소재 부품 기반시설구축(100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30억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3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500억원) ▲2015광주하계U대회 경기시설 확충(100억원) ▲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조기착공(30억원) ▲하이테크 몰드 허브 구축(183억원)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250억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45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록 건설(100억원) 등이다.

강 시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공약 이행 추진단’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용섭 의원을 제외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이번 추경에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등을 방문했다.

박 지사는 이날 문광부 유진룡 장관을 만나 F1 대회 운영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지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1900억원의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면담하고 5GW 풍력발전단지 조성, 자동차 튜닝산업 핵심기반 구축사업, 해양레저장비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위한 국고 지원도 요청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앞서 박 지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예결위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와 최재성 민주당 간사를 각각 만나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시·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현안사업 예산이 밀리면 향후 5년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진다”면서 “일단 각 사업별로 최소한의 사업비라도 얻는 게 중요하며,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 전국 최초 ‘유권자 영화제’

市선관위, 다음달 10~16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를 소재로 한 ‘제1회 광주유권자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권자 영화제 개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광주유권자영화제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유권자 참여 문화행사다.

이번 영화제에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레미제라블과 스윙보트, 26년 등 총 18편의 영화가 광주극장과 광주영상복합문화관(GVCC)에서 상영된다.

영화관람을 원하는 유권자는 광주시 선관위 홈페이지(http : //gj.election.go.kr)에서 5월9일까지 인터넷예매를 하면 된다. 30인 이상 단체관람은 4월30일까지 광주시 선관위 홍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선관위는 영화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투표와 개표체험을 할 수 있는 선거체험관과 선거기록사진 특별대전, 영화관람 후기 작성 온-오프 라인(ON-OFF LINE)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마련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내달 선임

면접 통과 2명 인사공청회 주목

내달로 예정된 광주환경시설공단 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면접전형을 통과한 2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시설공단은 김응모 현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달 27일 끝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공모했다. 18~19일 서류접수, 23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전형을 실시한 뒤 이사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이후 시의회 4명과 시민단체 3명 등 총 7명의 패널을 구성해 면접을 통과한 2명을 대상으로 인사검증공청회를 갖는다. 인사검증공청회는 지난해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공사·공단 임원 검증 공청회 조례’에 따른 것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들에 이어 이번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들이 두번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공사·공단 임원 검증 공청회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이 마지막 인사검증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인사검증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적·부적격’ 판정을 하지는 않고, 후보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인사추천위원장은 경과보고서와 함께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선택은 광주시장이 하게된다.

현재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후보감으로는 공무원 출신 인사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 4개 공사·공단 중 김응모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도시공사(사장 홍기남),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 기관장 3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광주시가 100%(5억원) 출연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16개 광주시 출연기관장 중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환경시설공단을 비롯해 남도학숙(8월), 광주테크노파크(12월), 광주문화재단(12월) 등 4곳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광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2층 세미나1실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력 근무제도, 출산·양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 심사 기준과 신청서 작성방법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오는 23일까지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281)로 신청하면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

중단 장기화… 제2 금강산 사태 우려

4일만에 4명 귀환

북한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이날 방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이들의 공단 방문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방북을 거부한 이유로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대표 10명은 현지 공장을 점검하고 조업중단 사태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를 북한에 전하는 한편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측 직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해 왔다.

기업인 대표들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 북측의 방북 동의를 기다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입주기업의 요청과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로선 매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9명은 식료품과 가스 등 필수품이 부족해 체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과 인도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요일과 북한의 연휴(태양절)로 14~16일 중단됐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남쪽 귀환이 이날 나흘만에 재개됐다. 이날 정오께 개성공단에서 귀환하는 우리 측 인원은 당초 3명이었으나 환자 1명이 추가돼 4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목포항에 국내 최대 마리나항 조성

2031년까지 1천척 규모

목포시가 2031년까지 1020여척의 선박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전용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목포항 특화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17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리나 개발 기본구상, 도입시설, 사업비 산정, 사업추진 방식 등 그동안 추진한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세부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팀은 내항, 남항, 평화광장, 고하도, 유달유원지에 4053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해상계류시설, 호텔상업복합, 테마오피스, 주차장, 제조 및 수리시설, 해양레저 등 마리나 지원시설 등 1020여척 규모의 마리나 전용시설을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1단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30척(내항 430척, 남항 50척, 평화광장 50척), 2단계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50척(내항 80척, 남항 60척, 유달유원지 50척, 고하도 60척), 3단계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40척(내항)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 사업 착수 전에 목포내항의 어선, 목포수협, 해경경비정 부두를 이전하도록 하고 향후 마리나항만 기반시설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용역팀은 이날 보고에서 “목포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다도해의 시발점이고, 중국과 일본, 제주, 부산 등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남권 관광교통중심도시로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항은 KTX,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돼 있어 관광객 집객 효과와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리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선 및 관련 산업이 집적화돼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정종득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마리나항만 시설이 조성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전진기지 역할과 함께 목포항 개항 이후 제2의 전성기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 지
4,900㎡(1,485평)
건 물
295㎡(90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풍암지구입구 35m대로변 코너 주차편리 매2억6천만원 (카센타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 룸 교 환

두암동4층 원룸
대 지 324㎡
건 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융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